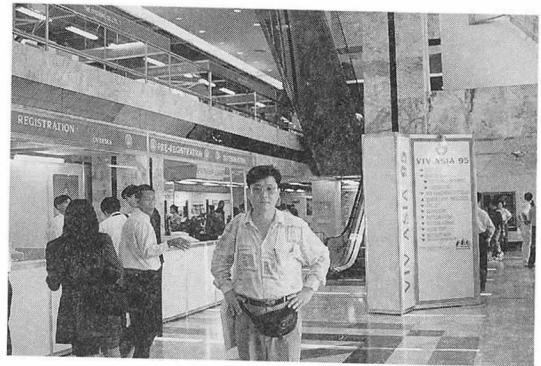


김정균
(코하트무역 대표)

VIV-ASIA 95는 1995년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4일간 태국방콕의 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동남아를 대표하여 VIV-EUROPE 주관사에서 개최하였으며, 세계 각국 및 동남아 국가 57개국으로부터 약 8,600명이 VIV-ASIA 전시를 참관하였다.

물론 세계적인 축산전시인 VIV-EUROPE, EUROTIER, WORLD-PORK EXPO 등에 비교하면 이루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적지만 낙후된 동남아의 양돈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이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거듭 발전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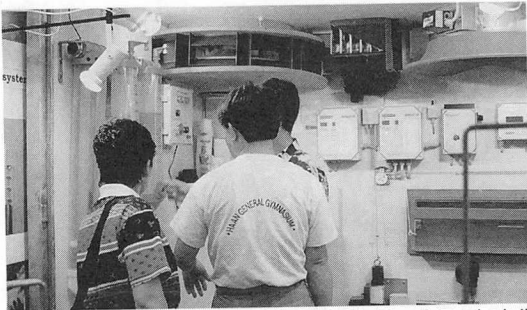
이번 VIV-ASIA를 참관하고 새삼 새로운 것을 느낀 것은 무한한 인간한계에 도전하고자 하는 기술의 혁신에 찬사를 보내고 특히 덴마크의 자동급이 시스템, 네덜란드의 Tube chimney형 환기 시스템 및 육가공 기계분야, 스페인의 6단 조절용 습식급이기 등등은 최고 기술을 자랑할만큼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 전시장 입구에서 필자

또한 우리 나라의 양돈 사양가와 축산기자제 업체간에 서로 연구하며 배울점을 얻은 것이 가장 큰 보람으로 느낀다.

특히 축사를 시공하는데 따르는 경비는 우리 농가에서는 큰 부담으로 안고 있는데 서방 선진 축산국가처럼 사전 도면 및 모형 그래픽에 따라 설계 및 잘못된 것을 서면으로 한번 여과하여 설계 및 시공에 착수한다면 비용에 따른 시행착오



▲ 터널형 공조 역학 이용한 입기시스템. 온·습도 및 안개 방역 검용이 특징



▲ 세계 최고의 입·배기 멀티기능 환, 회오리 바람 형태의 환기팬은 여름철 혹서기에 최적



▲ 최신 튜브형 자동급이 시스템



▲ 사료 낙하를 6단으로 자유조절 할 수 있는 습식급이기

는 없을 것이며 이제부터라도 우리 축산기자재 업체는 기술투자 및 연구를 꼭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낙후된 기술의 혁신만이 국제경쟁력에서 품질로서 대처하여야 가격경쟁을 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라도 축산기자재의 가격을 현실화 하여 질 좋고 저렴한 품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상품소개 및 판매가격을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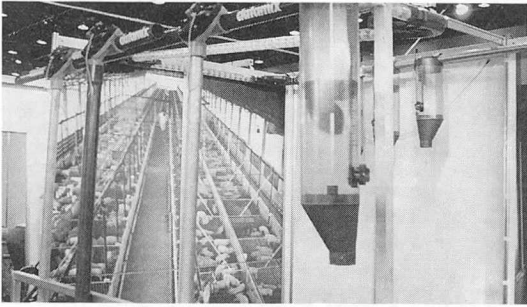
- Housing & pens system은 지역에 따라 단열처리 및 자재선택이 다르므로 축산기술 전문가와 기술상담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강원도와 제주도는 분명히 다른 방법의 건축자재가 선택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무창돈사가 지역별로 성공한 지역이 있고 실패한 지역이 있으며 또한 자재 및 단열처리 잘못으로 실패한 곳도 많이 있다.

- Ventilation system은 horizontal & Vertic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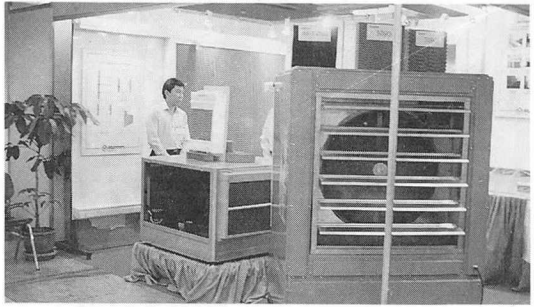
type의 일반형 환풍기와 chimney tube형의 굴뚝형 환풍기와 이러한 환풍기를 가변제어하여 줄 수 있는 컨트롤과 고장신호를 알려주는 알람기능 컨트롤로 분류되며 일반형 환풍기는 2십만원대(18", 20"), 3십만원대(24"), 5십만원대(32"이상 샐터 부착형). 굴뚝형은 6십만원~7십만원대에 판매됨(환풍기, 컨트롤, 굴뚝 포함). 특히 돈사내부에 먼지 및 개스는 회오리바람형을 이용하여 360도 회전하며 바람이 선풍되기 때문에 유창돈사의 혹서기 선풍기로 출품한 것이 특징이었다.

- Flooring & Wet feeder, Auto feeding system은 바닥제의 경우 1피트당 2~3천원 대에 저렴하게 최고의 품질로 시공할 수 있으며, 습식급이기는 12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특히 Tube 라운드 형의 습식급이기는 40만원대에 50두의 비육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웬제트 라운드의 후드를 이용한 온·습도 조절 및 혹서기의 쿨링패드 환기장치는 무창돈



▲ 최신 코팅한 자동급이 케이블. 자동급이시 소음이 전혀없는 것이 특징



▲ 이동형 쿨링팬 및 냉장장치 시스템



▲ 급수, 니벨 시스템



▲ 신제품 무소음 팬(무창돈사에 최적)

사에서 사양관리에 필요한 제품임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특히 터널형을 이용한 역학구조는 새로운 우리의 연구과제로 혹서기 여름철에는 바람 역학을 이용하여 안개분무를 하여 줌으로써 건습한 냉풍을 돈사내부에 불어넣어 줌으로써 혹서기의 무창돈사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었다. 그동안 국내에서 인기제일로 판매되어 온 안개분무는 단순한 방역소독에 불과한 것인데, 잘못 인식하여 여름철 쿨링시스템으로 사용되었다.

• 자동급이시스템은 고속이송과 신선한 사료 공급에 역점을 두었고 무소음작동으로 급이스트레스를 최소화 하였으며 사료의 원형 그대로 이송을 위하여 케이블코팅을 하였다. 자동급수시 이유자돈이 수압으로 인한 스트레스방지를 위하여 Center flow hollow 시스템의 니벨은 그들이 연구·노력하는 것에 찬사를 보낸다.

A.I.기구는 아직까지는 응용단계에 있으며 기타의 수의학 기구들도 동남아의 낙후된 양돈산업

만큼이나 이제부터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낙후된 수의용 기구, 환경, 관리에서 개량중돈을 기대하기란 힘들며 선진양돈 기술을 접목하여 우리식의 기술축적을 하는 것이 동남아가 안고 있는 우리의 과제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연구실 협농장을 통하여 기록관리에 의한 생산비절감, 사양관리 및 방역프로그램 체계 확립, 이러한 모든 것이 곧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는 하나 국제화시대에 우리가 나아갈 곳은 품질의 차별화를 통하여 우리의 신토불이를 세계화 하는 것이다. 우리의 것을 우리식대로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식대로의 것을 보이지 않는 무한전쟁에서 세계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축산인 모두가 하나가 되어 신기술 전파로 기술의 현대화에 앞장서고 양돈 선진화를 이루어 무궁한 양돈산업의 발전을 기원한다.